

2015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생활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생활로 계속 나아가기를 열망하신다.

우리가 성전인 교회생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안정되고 강화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동이 트고 샨별이 떠오르기까지 몸 안에서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밝게'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과 관련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2015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

메시지 1

주님과 함께 성막인 교회생활에서
성전인 교회생활로 계속 나아감

성경: 겔 43:10-12, 요 14:23, 빌 3:12-14, 사 66:1-2, 57:15, 엡 2:21-22

- I.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폼에 안다’ 혹은 ‘안기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폼에 안으시고 얻으신 것이, 우리가 그분께 안기고 그분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을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은 우리로 그분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건축됨으로써,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새사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집인 교회,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될 수 있다—합 1:1, 2:2, 4하, 빌 3:12-14, 비교 창 41:51-52.
- II. 하나님의 백성의 일과 행동과 인격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일치해야 하고, 하나님의 설계와 모형을 따라야 한다—겔 43:10-12.
- A. 하나님의 건축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변화시키시는 영과 협력하여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전 3:9, 12, 16-17, 아 1:10-11, 엡 4:11-12, 요 14:23.
- B. 하나님의 집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에 의해 살며, 그 영에 의해 행하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며,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경배하며, 우리의 영 안에서 봉사하고, 그 영으로 흘러넘쳐 그 영을 공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전 2:5, 엡 5:18, 갈 5:16, 25, 빌 3:3, 롬 8:4, 요 4:24, 롬 1:9, 요 7:37-39, 고후 3:6, 요 6:63, 사 66:1-2, 57:15.
- C.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친구들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반자는 하나님을 가장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게 접촉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분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분께 사용된다—요 2:17-22, 약 2:23, 출 33:11.
- III.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 A.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이 성전과 합쳐진 것을 보여 준다. 성막은 성전의 이동식 전신(前身)으로서 광야에서 옮겨 다녔으며, 반면에 성전은 예표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결이었다.
- B. 성막의 확대인 성전은 교회가 강해지고 안정된 것을 상징하고, 성전 안의 기구가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을 상징한다.
1. 성전과 성전 안의 지성소의 치수는 성막과 성막 안의 지성소의 치수의 두 배였다. 더 나아가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기구와 집기들의 크기와 개수가 크게 증가했다—왕상 6:2, 20, 대하 4:1-8, 비교 출 26:3, 16, 18, 22-24, 33.
 2.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되실 수 없을지라도 성전과 그 기구와 집기로 상징된,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어울리도록 크게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엡 3:8, 14-19, 빌 3:7-14.

- C. 성막은 이 땅 위의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반면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인 교회를 상징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런 목표인 몸의 실재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귀중한 절차이다—엡 1:22-23, 비교 계 21:10-11.
- D. 유일한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현된다—출 25:22, 38:21, 계 1:2, 9, 비교 엡 4:4, 요 16:13.
- E. 고린도전서 12장에 묘사된 몸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증거이다. 이 증거는 바로 몸의 증거이다. 오늘날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증거여야 한다—요 16:14-18, 20.
- F. 교회는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지방’에 있지 않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eness)의 생명이다—요 17:11, 21, 23, 계 1:10-12.
- G.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의 증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와,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하는 것이다—엡 1:17, 3:16-21, 4:1-6, 16.

IV.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생활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생활로 계속 나아가기를 열망하신다. 성전인 교회생활의 실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계와 성막의 역사(歷史)를 보아야 한다—히 6:1상, 수 3:14-17, 신 8:7-9, 엡 2:21-22, 골 1:12, 2:6-7.

- A. 언약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마 1:23.
- B. 언약계는 그 첫째 단계의 역사에서 성막의 중심과 내용이였다. 이러한 언약계는 교회의 중심과 내용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언약계가 성막의 이상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고, 생명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출 25:10, 40:21, 골 1:17하, 18하, 엡 4:15-16.
- C. 이스라엘 백성의 하락 때문에, 언약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성막에서 분리되었으며, 성막은 실재가 없는 빈 그릇으로 남게 되었다—삼상 4:3, 11-6:1.
 1. 하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었는데, 이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롬 2:28-29.
 2.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쭙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갈망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마음에 두지 않고, 언약계의 움직임을 통해 체험한 과거의 승리들을 근거로 하여 미신적으로 언약계를 신뢰했다.
 3. 언약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언약계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의 그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은 움직이실 의도가 없으셨다.
 4.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도,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안식과 이익을 위하여 강제로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나가시게 한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살아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치할 때마다 하락이 있게 된다—왕상 8:48.

5. 하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다. ‘언약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이기부’ 곧 ‘영광이 없음’을 의미한다—삼상 4:21-22, 11상, 13상, 비교 골 1:27-29.

V. 이스라엘 백성의 하락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복사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권익과 유익만을 관심하는 사람인 사무엘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심으로 다윗을 얻으셨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얻으심으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었다—삼상 1:27-28, 2:30, 3:1-4, 9-10.

- A.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된 나실인, 곧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대치한 자원자였다—삼상 1:11, 28상.
- B.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행동했으며, 이 땅에서의 신성한 통치를 위해 왕들을 임명하고 세우기까지 했다—삼상 2:35.
- C. 하나님에 의해 신언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왕들을 도왔고, 낡고 진부한 제사장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다—삼상 3:20.
- D.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은 낡은 제사장 체계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수행하였다—삼상 7:15-17.
- E.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 안에 지켜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민족들의 우상들에 붙잡히지 않고, 에벤 에셀(‘도움의 돌’이라는 뜻—역자 주)이신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의 갈망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였다—삼상 12:23-24, 7:3-14, 8:6, 15:11하.

VI. 언약궤와 성막의 역사는 교회 역사를 예표한다.

- A. 교회 역사의 첫째 단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셨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출 40:21.
- B. 둘째 단계에서 교회는 하락하여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렸다. 교회는 내적인 실재가 없는 텅 빈 그릇이 되었다—계 3:20.
- C.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되찾아져서, 먼저는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이십 년 동안 머물렀고(삼상 6:2-7:2), 그 후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삼하 6:10-12). 이것은 2세기 이후로 주님의 임재는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생활을 갖지 못한 많은 ‘오벰에돔들’이 일으켜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 D. 다윗은 언약궤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가 언약궤를 위해 준비한 천막 안으로 옮겼는데, 그 천막은 예루살렘에서 최상의 장소인 시온 산에 있는 다윗의 성 안에 있었다(삼하 6:12-19, 대상 15:1-16:1). 이것은 진보된 상황이었지만 언약궤가 성막으로 되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는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 이 상황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는 다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교회생활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교회생활의 부적합한 실행(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천막) 안에서 그분을 소유했다—비교 왕상 3:3-15, 대하 1:10.
- E.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끝마친 후에, 언약궤는 성전 안의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인 교회생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성전인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서 단체적인 생활을 한다—왕상 8:11, 48, 엡 2:21-22.